



『예수님과 가난한 여인』, 피터 라스트만, 1617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야 56,1.6-7

회답송

(후렴) 하느님, 모든 민족 들 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레들을 이끄시니, 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11,13-15.29-3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 마태오 15,21-28
- 성가 | 입당성가 [480] 1-4
- 예물준비 [215]
- 영성체 [504]
- 파견성가 [46]

미사봉헌

연미사

임판례
김재윤 요셉
박현진 스테파노
박현진 스테파노
가장 불쌍한 영혼

봉헌

윤루시아
김태경 사도요한
이희철 아오스딩
윤요한 루시아
김경련 울리다

생미사

김영희 클라라 영명축일
김영희 클라라 영명축일
방상우 알렉시오, 노영일 크리스토퍼
서인철레오노, 이영노울리안나, 서하연프란치스코
유정옥 유스티나 선서
노영일 크리스토퍼, 광세나루치아
성모회 회원
민성진 에드문드, 함승연마르타
박정자 로사 영명축일
김명숙 건강회복
이로잔 캐더린
유재선 울리안나 건강
이병하 요한의 선종
오승국
박정호 로사 영명축일
여채령 클라우디아
정민영 클라라 영명축일
이은경헬렌, 이규한안토니오영육건강
이은경 헬렌 건강
박알버트, 아그네스
조성윤 바실리오
이명숙 루시아, 이석 엘리사벳
김영희 베드로, 조진희 요한
이애자 수산나
전요셉, 전헬레나 축일, 유기호베네딕도건강,
조남록 미카엘건강, 케빈전 요한나축일

봉헌

익명
구세주의모후 Pr.
익명
익명
구세주의모후 Pr.
대부 임노엘 루카
민정신 아폴로니아
가족
강혜숙 바울라
강혜숙 바울라
이안나
황지윤아녜스, 이영주비오
이영주비오, 황지윤아녜스
표카타리나
박울리바
우리즐거움의 원천 Pr.
우리즐거움의 원천 Pr.
양미숙 마리아
민정신 아폴로니아
경가밀라
정안젤라
김유화 데레사
이명숙 루시아
윤루시아
김경련 울리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영합니다.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선교위원장 강희욱 파트리시오 수사님

▶주일학교 장학금 전달식(2명)

김현용 니콜라오, 흥찬 라파엘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8/27(주일), 11시, 다미아노홀

▶청년회 비즈세일

일시: 8/20 미사후 친교실, 품목: 목주팔찌, 반지, 핸드폰줄
*캠프 펀드레이징을 위한 이벤트로 모든 수익의 20%는 교무금으로 입금됨

▶청년회 여름캠프

날짜: 8/25-27(2박3일), 장소:Lebanon,NJ ,참가비:\$220
문의: 청년회장 양젼마 kakao ID: Jcy258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개강

주일반	9/10(주일)1pm	신청:효주수녀
목요일반	9/14(목) 10am-11:20am	마감:9/3까지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신자분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단기 출석교육'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교리' 가능합니다.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8(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우분 한명이 예비신자 한 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효주수녀 347.834.5784

▶2024 본당달력 광고안내 신청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2024년 달력 제작합니다. 달력에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마감: 9월 10일(일) \$ 150

▶2024년 성지 순례단 모집

"약속의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모세구리뱀 느보산, 와디럼광야체험, 사해, 베들레헴, 주님성탄성당, 유다광야, 꿈란공동체, 예리코유혹의산, 나자렛, 주님탄생예고성당, 갈릴레아, 베드로생가, 겐세마니, 거룩한 무덤대성당, 승천성당 등. 인솔: 신부님, 수녀님 경비: \$3,700
예약금: \$500 문약박알버트 646-201-0175 선착순마감: 30명 9/30까지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 교사로 봉사하실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김가롤로 신부님

▶여행중 미국내 성당 찾기

여행 중에도 주일미사는 꼭 참여 합시다.
Call 1-800-Mass Time (1-800-627-7846)
또는 www.masstimed.org 검색하세요.

▶여름철 미사 참례시 복장과 자세

미사는 제사 의식임을 기억하시고, 예의에 어울리는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례하십시오.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하십시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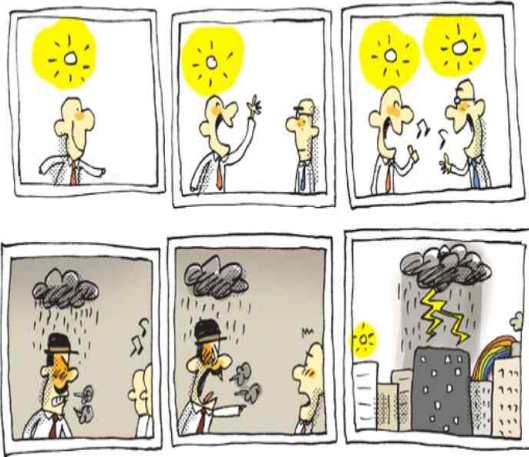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기분은 바이러스같은것.



그대는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나요?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8/20	조소연 마르티나	민완준 필립보	정유진 콘솔리아	정유진 콘솔리아	유정욱 유스티나	한서희 데레사 최예준 사도요한
8/27	이지훈 아레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민덕미 안젤라	양지수글 라라 김승현 마리아

만인에게 열린 구원

| 김종기 바오로 신부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은 출신 성분이나 특정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계명에 충실하면 그 어떤 이방인도 성전에 모일 수 있다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기원전 500년 언저리의 이야기인데, 그 때 이미 구원은 유다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느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의 불충실과 배신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유다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확대됩니다. 이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내용을 다시 말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와서 예수님께 마귀 들린 자기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인 가나안 부인을 마치 개처럼 무시하며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부인은 예수님의 무시하는 말을 인정하며,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부인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대견해하시며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티로와 시돈은 가파르나움에서 서북쪽으로 약 50 km 떨어진 해안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곳의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자신의 간절한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는 ‘개’라고까지 천시받는 모욕을 참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이러니이며, 그 믿음으로 그 부인은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만하면서도,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충실하지 못하였고 하느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느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라 해서, 세례 받은 천주교 신자라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얻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